



**2017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문인력(기획자) 해외문화예술동향 리서치
(2018년 1월, 스페인)**

2018.02.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17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문인력(기획자) 해외문화예술동향 리서치
2018년 1월 _주 스페인 한국문화원 [강민경]

□ 목차

No.	구분		내용	page
1	현지동향		교육문화체육부, 올해의 골드메달(la Medalla de Oro al Mérito en las Bellas Artes 2017) 수상자 24명 발표	3
2			동방박사의 날(Día de los Reyes Magos)과 퍼레이드(Cabalgata de Reyes Magos)	4
3	문화 예술 디렉 토리	기관 및 단체	Instituto Nacional de las Artes Escénicas y de la Música (INAEM) / The National Institute of Performing Arts and Music	6
			ACCIÓN CULTURAL ESPAÑOLA(AC/E)	7
4		공간	El Círculo de Bellas Artes de Madrid (CBA)	9
5		축제 및 행사	Madferia	10
6				

□ 현지동향

I. 현지 동향 <1>			
유형	예술일반	장르	복합(전체)
관련링크	https://www.mecd.gob.es/prensa-mecd/en/actualidad/2017/12/20171222-medallas.html		

교육문화체육부, 올해의 골드메달(la Medalla de Oro al Mérito en las Bellas Artes 2017) 수상자 24명 발표



Image : Badge of the Gold Medal of Merit in the Fine Arts

(출처 : Wikimedia Commons)

스페인 교육문화체육부는 2017년 문화부문 골드메달 수상자 24명을 발표하였다.

스페인의 문화부문 골드메달은 해마다 교육문화체육부가 문학, 연극, 음악, 무용, 연기 등 각 문화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예술의 진흥과 보급, 보존을 위해 큰 공로를 세운 예술가(혹은 기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원래는 골드메달과 실버메달로 나누어 시상하였지만, 1996년부터는 골드메달만 수여하고 있다.

올해의 수상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3천만장 이상의 앨범을 판매하였고, 100개 이상의 골드, 플래티넘 앨범상을 수상한 바 있는 작곡가 José Luis Perales, 음악 뿐 아니라 영화 감독, 배우, 조각가, 작가, 시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Luis Eduardo Aute와 연극과 영화를 오가며 활동하는 배우 Juan Echanove, 사진 작가 José Luis Alcaine, 영화음악 작곡가 Alberto Iglesias, 풍자만화가이자 무대미술가 겸 화가인 Andrés Rábago, 가수 겸 배우 María Dolores González

Flores(Lolita), 배우 María Luisa Merlo, 플라멩코 안무가 겸 무용수 Eva Yerbabuena, 미국에서 레스토랑을 운영중인 요리사 José Andrés, 문학 번역가 Miguel Sáenz Sagaseta of Ilúrdos, 아동청소년 문학 작가 Jordi Sierra i Fabra, 인테리어 디자이너 José María Ortega (Ester Ortega), 파리의 Thessa Herold 갤러리를 운영중인 Thessa Herold, 조경사 Consuelo Martínez-Correcher, 예술품과 및 고고학 유적의 보존과 복구를 해 온 María Paz Navarro, 카탈루냐 지역의 기획자 María del Carmen Mateu, 프라도 미술관에 소장품을 기부한 María Isabel Ruiz와 Óscar Alzaga 등이 포함되어 있다.

쿠바출신의 할리우드 영화배우인 Andy García의 경우 여러 자선 활동과 스페인과의 관계, 할리우드에서 히스패닉계 배우로 성공한 점들을 이유로 올해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그룹이나 기관으로는 스페인의 락밴드 Hombres G와 전 세계적으로 4천만장 이상의 음반을 판매한 멕시코 락 밴드 Manna, 건축사무소 Nieto Sobejano Arquitectos의 Fuensanta Nieto와 Enrique Sobejano 등이 선정되었다. 사후 수상자는 플라멩코 가수이자 코미디 배우인 Chiquito de la Calzada, 투우사 Dámaso González Carrasco가 있다.

1. 현지 동향 (2)			
유형	시민축제	장르	복합
관련링크	https://www.thelocal.es/20160104/three-kings-wise-men-magi-santa-spain https://www.elconfidencial.com/espana/madrid/2018-01-03/cabalgata-reyes-2018-madrid-carmena-carrozas_1500682/		

동방박사의 날(Día de los Reyes Magos)과 퍼레이드(Cabalgata de Reyes Magos)

스페인의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만큼, 아니 어쩌면 더 기다리는 날이 ‘동방박사의 날(1월 6일)’이다. 성경에서 동방박사들이 아기예수에게 선물을 가지고 찾아간 날인 이 날은 스페인의 어린이 날이기도 하다. 아이들은 선물을 받기 위해 동방박사들에게 편지를 쓰고, 동방박사와 그들이 타고 올 낙타를 위해 음식과 마실 것들을 신발과 함께 트리 아래나 문 밖에 놓아두고 잔다.

동방박사의 날을 기념하여,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의 각 지역에서는 1월 5일 저녁 “동방박사 퍼레이드(Cabalgata de Reyes Magos)”가 개최된다.

발렌시아 지역 알리칸테의 퍼레이드는 1866년 처음 시작되었고, 1885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스페인에서(알리칸테의 주장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퍼레이드이다. 마드리드에서는 1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거리로 모이고, 바르셀로나에서는 동방박사들이 배를 타고 항구로 도착하며 퍼레이드가 시작된다. 퍼레이드에 등장한 동방박사들은 관객들을 향해 사탕을 던지고 아이들은 그 사탕을 받기 위해 가방을 준비하거나, 우산을 거꾸로 드는 등 기발한 방법을 고안하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퍼레이드에서 동방박사의 역할은 시의원이 맡았는데, 대부분의 시의원이 백인이었기 때문에, ‘인종차별’의 이슈가 있었다. 마드리드에서는 좌파정권이 들어선 후 문화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흑인이나 여왕을 등장시키고 있으며, 올해 퍼레이드에 드래그퀸(여장남자)이 참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전통’ 대 ‘평등’, ‘문화다양성’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8월 바르셀로나 차량 테러 이후, 테러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밴과 트럭 출입 제한, 동방박사들의 경비 강화 등)가 취해졌다.

필자가 참관한 올해 마드리드의 퍼레이드에는 기마병과 기사들, 요정 등 고전 캐릭터들과 거대인형들, 소방관, 경찰, 병원,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들이 함께 하였다. 200주년을 맞이한 스페인 국립극장(Teatro Real)은 모차르트 머리모양과 오페라 소품, 조명으로 장식한 퍼레이드카로 시선을 끌었다. 위대한 발명가와 과학자들을 기리기 위해, 아인슈타인과 레오나르도 다빈치, 퀴리 부인 등이 등장하기도 했다. 퍼레이드의 하이라이트는 동방박사들의 등장이었으며, 미리 피라미드 형태의 퍼레이드카를 탄 3명의 동방박사와 어린이들이 지나가며 2시간 여의 퍼레이드가 마무리되었다. 비가 오는 중에도 꾸준히 시민들이 찾았으며, 그 중에는 키가 작은 아이들을 위해 집에서 사다리를 가지고 온 가족들의 모습도 보였다.



퍼레이드를 관람하는 시민들의 모습.
뒷줄에는 사다리에 올라가 관람하는 어린이들을 볼 수 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음악과 함께 등장한
Teatro Real의 퍼레이드 카

동방박사의 날인 1월 6일에는 링모양의 “로스콘(Roscón)”이라는 빵을 나누어 먹는데, 빵에는 말린 과일과 크림, 작은 인형과 콩이 들어있다. 인형이 든 조각을 먹으면 그 날의 왕이 되고, 콩이 있는 조각이 당첨되면 다음 해의 로스콘을 사야하는 전통이 있다. 일부 빵집은 로스콘 안에 다이아몬드, 금 등의 보석이나 수표 등을 넣어 고객들에게 행운의 선물을 안겨주기도 한다.



동방박사를 태운 퍼레이드카



“동방박사의 날”에 먹는 로스콘 빵

□ 문화예술 디렉토리

I. 문화예술 디렉토리 <기관 및 단체>

기관 및
단체

기관/단체명	Instituto Nacional de las Artes Escénicas y de la Música (INAEM) / The National Institute of Performing Arts and Music		
유형	공공기관	장르	연극, 무용, 음악, 문학, 서커스
운영주체			
소재지	마드리드	설립년도	1985년
기관현황			
홈페이지	http://www.mcu.es/gabineteprensa/mostrarDetalleGabinetePrensaAction.do;jsessionid=D170BDDCD0F7823C79FC5D1F6FA67478?prev_layout=notasINAEM&layout=notasINAEM&html=37212018nota.txt&language=es https://www.mecd.gob.es/cultura-mecd/areas-cultura/artesescenicas/informacion-general/lineas-de-actuacion.html		
국립공연예술음악협회(INAEM)는 연극, 무용, 문학, 음악, 서커스 공연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해 1985년 설립된 문화예술분야의 독립 국가 기관이다. 설립 목적은 1. 모든 형태의 공연들을 진흥, 보호, 보급하고, 2. 이러한 활동들을 외부에 투영하여 알리고 3.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가진 자치주 사이의 문화적인 소통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 상, 보조금, 지원금의 수여를 통한 공연예술의 진흥과 보급 활동 2. 문화부나 INAEM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공과 민간의 음악, 문학, 무용, 연극 창작 및 제작 센터의 프로그래밍과 관리 3. 음악과 무대 자산의 목록작성, 분류 및 보급 4. 기타 위탁업무 수행의 기능을 맡고 있다. INAEM의 활동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NAEM이 직접 창작, 전시, 단독 혹은 공동 제작하는 직접 활동 영역이다. 공연제작, 전시, 다큐멘테이션 및 공연(음악, 무용, 연극, 서커스 등) 홍보, 보호, 배급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직접 창작하고 홍보한다. 특히 스페인 공연의 보호와 보존의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기록 센터와 국립연극박물관(알마그로 소재)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대기술센터를 통한 훈련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INAEM이 직접 운영하는 공연기관은 국립드라마센터(Centro Dramático Nacional), 국립고전극단(Compañía Nacional de Teatro Clásico), 사르솔레아 극장(Teatro de La Zarzuela), 국립무용단(Compañía Nacional de Danza), 국립발레단(Ballet Nacional de España), 국립음악당(Auditorio Nacional de Música), 국립오페라 및 합창단(Orquesta y Coro Nacionales de España), 국립청소년오케스트라(Joven Orquesta Nacional de España), 국립음악보급센터(Centro Nacional de Difusión Musical), 연극기록센터(Centro de Documentación Teatral), 음악무용기록센터(Centro de Documentación de Música y Danza), 댄스포털(Portal de la Danza), 무대기술센터(Centro de Tecnología del Espectáculo), 알마그로 연극 박물관(Museo del Teatro de Almagro), 마갈리아궁(Castillo-Palacio de Magalia)의 15개이다. 두 번째 활동영역은 공공이나 민간 단체의 지원부문이다. 매해 상금과 보조금, 지원금, 장학금 등을 수여하여 예술가와 단체의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장려한다. 공공과 민간 부문의 제작, 전시, 투어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 활동 영역인 협력과 참여 영역은, 공공/민간 공연예술단체의 특정 프로젝트나 지속적인 활동에 대해 협업하는 것이다. INAEM은 알마그로의 고전연극제(Festival Internacional de			

Teatro Clásico de Almagro.)와 메리다의 로마시대고전연극축제(Festival de Teatro Clásico en el Teatro Romano de Mérida.), 타레가의 피라타레가축제(Fira de Teatre al Carrer de Tàrraga), 카디스의 이베로아메리안연극제(Festival Iberoamericano de Teatro de Cádiz), 알리칸테 현대극작가축제(Muestra de Teatro de Autores Contemporáneos), 그라나다의 국제음악무용축제(Festival Internacional de Música y Danz), 라스미나스 음악축제(Festival Cante de las Minas), 산탄데르 국제축제(Festival Internacional de Santander) 등을 후원하고 있다. 또한 여러 공연단체와 기관들을 관리 역할을 하는데, 그 단체로는 왕립극단재단(Fundación Teatro Real), Lliure 극장(Teatre Lliure-Teatre Public), Abadía 극단(Teatro de la Abadía), 리세우 극장(Gran Teatro del Liceo), 카탈라음악당(Fundación “Orfeo Catalá - Palau de la Música Catalana”), Complutense 음악과학연구소(Instituto Complutense de las Ciencias Musicales), 마누엘음악문서보존센터(Fundación Archivo Manuel de Falla) 등이 있다

이와 함께, INAEM은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민간극장 보존을 위한 컨소시엄 등 공연 기반 시설 복구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자치주와 지역 단체들, AECID(스페인국제개발협력기구, Agencia Española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para el Desarrollo)나 세르반테스 문화원과 같은 문화부의 다른 기관들과 교류협력을 해나가고 있다.

현재의 대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세르반테스원장을 역임한 Montserrat Iglesias Santos 로, 2014년 임명되었다.



INAEM 로고



스페인문화부와 INAEM이 함께 사용하는 건물

기관 및 단체	기관/단체명	ACCIÓN CULTURAL ESPAÑOLA(AC/E)		
	유형	공공기관	장르	국제교류 지원
	운영주체			
	소재지	마드리드	설립년도	2010년
	기관현황			
	홈페이지	https://www.accioncultural.es/ https://www.accioncultural.es/media/Default%20Files/activ/2017/eb ook/MEMORIAACE_2016.pdf		
	AC/E(ACCIÓN CULTURAL ESPAÑOLA)는 전시, 컨퍼런스, 공연, 행사, 강연, 영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스페인의 이미지와 다양하고 역동적인 스페인의 문화예술을 국내외에 소개, 홍보하고 유통하는 공공기관이다. 2010년 국내외에서 스페인 문화와 예술의 홍보를 하고 있던 3개의 공공기관[Sociedad Estatal de Conmemoraciones Culturales(SECC, 국가기념사업회), Sociedad Estatal para la			

AC/E

Acción Cultural Española

AC/E 로고

Acción Cultural Exterior(Seacex, 해외문화원), Sociedad Estatal para Exposiciones Internacionales (SEEI, 국제전시협회)이 합병되며 설립되었다.

AC/E의 목표는 역사 유산부터 최신 창작품까지, 스페인의 풍부하고 다양한 예술적 유산을 홍보하고 현대 예술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과학, 역사, 시각예술, 공연예술 및 시청각 예술과 문학, 음악, 건축 및 디자인 등 거의 모든 창작 분야에서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AC/E의 활동 영역을 살펴보면,

1. 주요 기념 이벤트 : 주요한 사건이나 인물, 예술-역사, 과학적 혹은 문화적 사실을 바탕으로 현대적 의미를 재검토, 재해석하고 업데이트하여 제공한다. 특히 해외에서의 기념 이벤트를 통해 특정 국가나 지역과 스페인의 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2. 국제 박람회 : 국제박람회기구(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BIE)가 주관하는 EXPO에 참여하여 스페인의 이미지와 다양성을 해외에 알리는 통로로 삼고 있다.
3. 중요 문화 행사 : 비엔날레, 박람회, 축제와 같은 현대 문화예술 분야에 권위있는 국제 행사나 포럼 등에 참여하여 스페인의 예술 활동을 홍보한다.
4. 전시회 및 문화 활동 : 독자적 혹은 국내외 다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시, 공연, 출판물, 상영회, 콘서트, 프리젠테이션, 문화와 관련된 광범위한 활동들을 제공한다.
5. 스페인 문화의 국제화 : 스페인문화의 국제화를 위한 프로그램(PICE, Programa para la Internacionalización de la Cultura Española)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스페인 문화의 가능성을 장려한다. 예술작품과 예술가, 창작자, 기획자 등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교류를 지원하고, 해외의 예술가들의 스페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스페인의 축제, 행사, 박람회 등에서 제공되는 스페인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www.accioncultural.es/es/progPICE)
6. 예술가, 창작자 레지던스 : 레지던스프로그램을 통해 창작자들에게 시간과 공간, 작업 수단을 제공하여 다른 창조 예술 분야와의 접촉을 장려하고, 국제 네트워킹을 촉진한다.
(www.accioncultural.es/en/programme_of_residencies)

문화창작 분야의 활동을 하고 있는 공공/민간 단체, 기관, 에이전시, 전문가라면 AC/E에 프로젝트의 협력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스페인 예술의 해외 진출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에 동기를 부여하는' 프로젝트로, 제안서는 실행 초기 단계, 외부에 공개되거나 발표되기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현재 AC/E의 대표는 Fernando Benzo Sáinz(2016~) 이다.

* TIP : AC/E는 한국의 토지문화관과의 협약을 통해 문학 분야 예술가들의 레지던시 교환, 한국의 주요 페스티벌(공연, 전시, 영화 등)에 참가하는 스페인 예술가들의 후원, 한국의 국제교류재단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전시회 등을 진행한바 있다. 스페인에 진출하려는 예술가보다 스페인과 협력하고자 하는 예술가들에게 유용한 기관이다.

II. 문화예술 디렉토리 <공간>

공간명	El Círculo de Bellas Artes de Madrid (CBA)		
유형	복합문화센터	장르	복합
운영주체	Circulo de bellas artes		
소재지	마드리드	설립년도	1880년
공간현황	전시실 3개, 공연장 1개, 다목적홀 7개, 도서관 1개, 영화관 1개, 연습실 1개, 당구장 및 게임장 1개, 라디오방송국 1개, 서점 1개, 레스토랑 2개		
홈페이지	https://www.circulobellasartes.com/		

Círculo de Bellas Artes(CBA)는 마드리드 중심부에 위치한 복합문화시설로, 스페인 유명 건축가인 팔라시오스(Antonio Palacios)의 아르데코 스타일의 건물과 지붕 위 미네르바 여신 조각으로 유명한 마드리드를 상징하는 건축물 중의 하나이며, 시내 전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로도 잘 알려져 있다.



CBA 건물 외관



CBA 건물 입구



CBA 건물 내부 홀

공간

“예술과 공공의 이익 보호 센터”를 주창하며 1880년 Juan Martínez de Espinosa 등의 예술가들이 설립한 비영리 민간 문화기간인 CBA는 유럽의 주요 민간문화센터 중 하나로, 조형미술에서 문학, 과학, 철학, 영화와 공연까지 모든 종류의 예술 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설립 때부터 CBA는 뛰어나고 혁신적인 예술적 경향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예술 창작과 보급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들을 진행해오고 있다.

20세기 초반의 CBA는 주요 예술가들의 문화적 바탕이 되었는데, 노벨상 수상자인 하신토 베나벤테(Jacinto Benavente y Martínez)와 카를로스 아르니체스(Carlos Arniches)는 CBA의 이사회 일원이었고, 젊은 피카소는 그림 수업에 참여한 바 있으며, 스페인 유명 작가 라몬 바에 잉클란 역시 이 곳을 자주 찾았다고 한다.

1926년에 완공된 CBA빌딩은 공연장과 4개의 전시장, 영화관 및 6개의 다목적홀, 1개의 도서관, 1개의 작업장과 게임룸 등이 함께하는 복합시설이다.

메인 공연장인 페르난도로하스 극장(Teatro Fernando de Rojas)은 502석(1층 311석, 2층 87석, 3층 104석)의 극장으로 연극, 콘서트, 클래식 음악과 오페라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이 가능하다. 연회장(Salón de Baile)은 콘서트와 패션쇼, 연회 및 전시, 영화 상영 등이 가능하며, 매해 CBA의 전통적인 가면무도회가 열리는 공간이기도 하다.

다목적홀 중 하나인 Columns 룸(Sala de Columnas)은 18개 기둥에서 이름을 따왔는데, 공연 및 전시, 리셉션, 학술행사 등이 가능하며, 공연장으로 활용시 300석, 스탠딩으로 450석, 컨퍼런스 200석 규모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예술 활동이 가능한 라몬고메스룸(Sala Ramón Gómez de la Serna), 바예잉클란룸(Fernando de Rojas), 마리아삼브라노룸(María Zambrano Room), 뉴룸(Sala Nueva), 회의실(Sala de Juntas) 등의 다목적홀이 5층에 자리 잡고 있다.

전용 전시 공간으로는 미네르바, 피카소, 고야룸 등이 있고, 영화상영을 위한 214석 규모의 시네마스튜디오(Cine Estudio)와 15,000여권 이상의 도서 대여서비스가 가능한 도서관도 내부에 위치해 있다.

(사진출처 : CBA 홈페이지)



페르난도로하스 극장



Columns 룸

CBA는 다양한 강좌와 인문학 프로그램 역시 운영하고 있는데, 인문학 컨퍼런스에는 권터그라스, 유르겐 하버만스, 조지 스타이너, 등이 참여한다. 회화, 연극, 영화 워크숍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관련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한국 민화와 한국화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다. CBA가 La Fabrica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미술원(Escuela SUR)은 2014년 개교하였으며 미술전문가 과정(석사과정)과 미술기초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III. 문화예술 디렉토리 <축제 및 행사>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Madferia		
유형	공연예술마켓	장르	연극, 무용
운영주체	ARTEMAD		
개최시기	매해 1월	시작년도	2005년
개최도시	마드리드		
참가규모	참가자 350여명, 쇼케이스 16개 공연, 컨퍼런스, 워크숍 등		
홈페이지	http://www.madferia.com https://www.cofae.net/ferias.php		

마드리드의 대표적인 공연예술 박람회로 올해 14회를 맞이한 MADferia가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Matadero와 Kamikaze 극장, Cuarta Pared 등지에서 개최되었다.

MADferia는 공연예술 시장의 활성화와 증진을 위하여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매년 1월에 마드리드에서 열린다. 스페인의 최신 공연예술 작품이 소개되며, 공연 분야 전문가들간의 만남의 장이기도 하다.

ARTEMAD가 주최하고, COFAE(La coordinadora de ferias de Artes escénicas del Estado / Coordinator of Fairs and Performing Arts of the Spanish State)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이 행사의 주요 목적은 마드리드와 스페인의 극장과 연계를 통해 공연 작품의 생산과 유통, 질적 제고를 장려하고, 극장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마드리드 공연예술 프로덕션 연합회인 ARTEMAD(la Asociación de Empresas Productoras de Artes Escénicas de Madrid / Association of Performing Arts Production Companies of Madrid)는 마드리드주의 공연제작회사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로 1996년 창설되었으며. 현재 30개의 회사가 소속되어 있다. FAETEDA(La Federación Estatal de Asociaciones de Empresas de Teatro y Danza)의 소속단체이기도 하다.

MADferia는 공연예술 작품 중에서도 중소 규모의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9월 초까지 작품 공모를 받은 결과 총 582편이 신청하였고, 그 중 16 작품을 선정하였다.

주요 공연 장르는 연극, 무용 및 현대 서커스 등으로 쇼케이스 공연은 마드리드 뿐 아니라 발렌시아, 갈리시아, 안달루시아, 아스투리아, 무르시아, 카탈루냐 및 발레아레스 제도 등에서 제작되었으며, 새로운 무대 언어를 찾는 스페인 예술가들의 다양한 컨템포러리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컨퍼런스와 축제나 극장의 프로그래머와 제작사 간의 네트워킹 프로그램인 비즈니스 라운드를 비롯하여 교육 워크숍, 프로젝트 프리젠테이션 등이 함께 진행된다. 행사 마지막인 1월 26일 저녁에는 마드리드 시내 각 극장에서 공연을 보도록 하는 Cartelera madrileña 행사가 열렸다.



MADFERIA 등록데스크(@MATADERO)



MATADERO NAVE10에서 진행된 쇼케이스 관람객

* TIP : 우리나라의 해비치 아트페스티벌과 비슷한 행사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아직 해외 작품이 소개되지는 않고 있다.